

심근경색증 원인·증상과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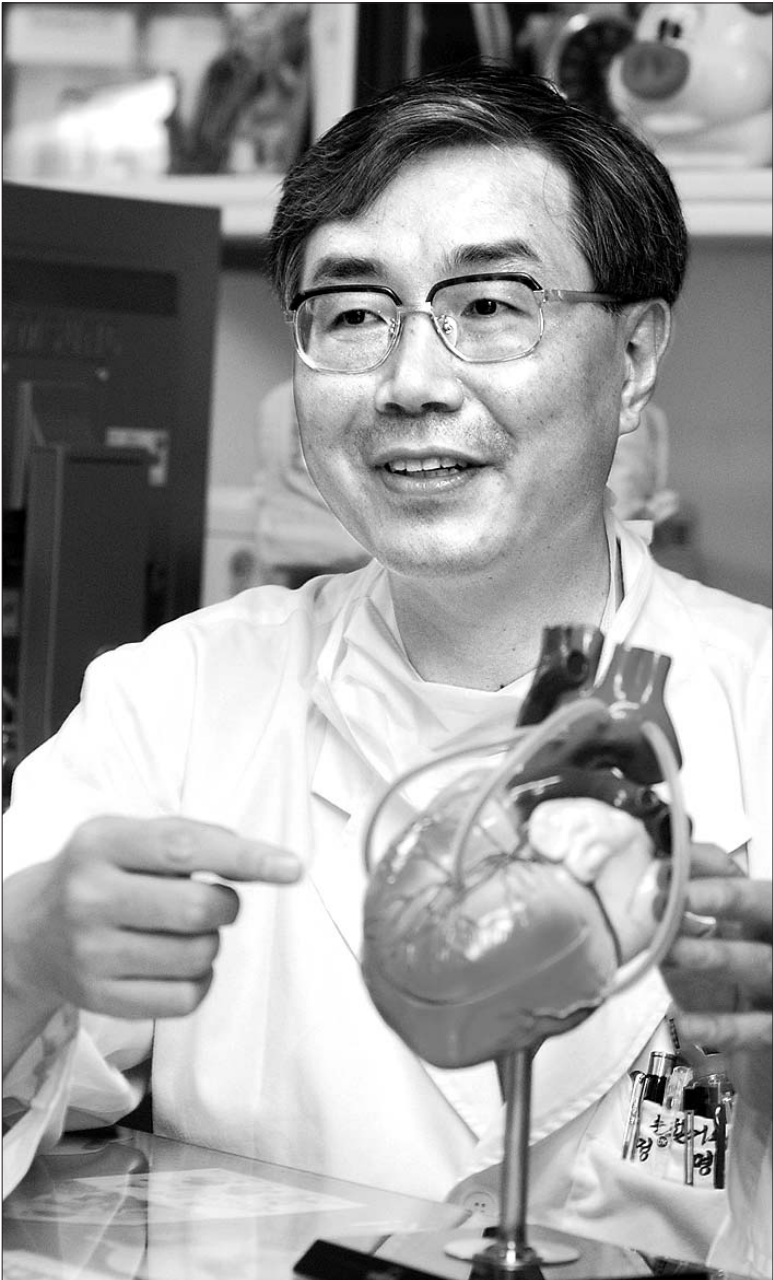
극심한 통증 전조...겨울 돌연사 주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숨진 이들이 늘고 있다. 심근경색증은 인간의 질병 중 가장 사망률이 높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0%에 달하는 급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이 급증한다.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은 11월부터 증가하여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 가장 많고 특히 노인들에게 발생률이 높다.

57%는 고혈압 환자 호흡 곤란 동반

6시간내에 병원 가면 심장괴사 막아

◇심근경색증의 원인과 증상=심근경색증의 증상은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식은 땀, 메스꺼움 등이 함께 나타난다. 심근경색증 발생시 가슴의 통증은 짓누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이 증상은 어깨나 팔로 퍼질 수 있으며, 가슴의 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할 만큼 매우 고통스럽다.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협심증이 있는데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기름기와 혈전에 의하여 막혀서 생기는 상태를 말하고 ▲협심증은 심근 허혈 상태로 심장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데,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를 말한다. 즉, 심근경색증이란 심근 괴사 상태로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혈전, 혈관수축에 의해 완전히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증의 발병 주된 원인으로 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가족력으로서 부모 형제 중 심장병, 뇌졸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심근경색증의 예방과 대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연구팀은 대한순환기학회에서 창립 50주년 연구 사업으로 ‘한국인 심근경색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전국의 50여 대학 및 종합병원을 대표하여 최근 5년동안 연구해 많은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 2000명 이상의 심근경색증 환자의 자료를 모았고,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2009년과 2010년에 시행한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층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었으며, 심근경색증 환자의 57% 정도가 고혈압 환자였고, 29%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이 많은데 서양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가 많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가 많았다. 전체 심근경색증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도 필요하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환자는 미리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 즉, 가슴에 압박, 총만감이 오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가슴 중앙부로부터 어깨, 목, 팔 등에서 통증을 느낀다. 식은땀이 나며 숨쉬기가 힘들면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목 가슴이 아프고 토할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난생처음 이상한 가슴통증을 느꼈다면 병원을 찾아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슴이 30분 이상 아프면 반드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만약 심근경색증이 일어났을 경우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빨리 119를



정명호 교수가 심근경색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불러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한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허 밑에 눕거나 뿌리는 니트로 글리세린이 있으면 즉시 복용하고, 효과가 없는 단방 약을 사용하거나 체한 것으로 오인해 손끝을 따거나 약국, 한의원, 개인병원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발병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심장의 괴사를 막을 수 있고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늦어도 12시간 안에 내원해야 심근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 막힌 심장혈관(관상동맥)을 풍선도자나 스텐트를 이용해 뚫거나 넓혀주는 방법이 있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환자의 70% 정도는 혈전이 녹아서 혈관이 뚫리게 된다. 심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해 혈전과 동맥경화증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확인한 다음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는 기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 <정명호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지정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총괄 책임자>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해자 구제법 시행...석면 질환 뭐가 있나

악성중피종 늑막에 흉수 차서 숨쉬기 곤란

원발성 폐암 석면 노출땀 발생 가능성 5배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과 관련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절연성과 마모에 강함때다 산성이나 알칼리 등 약품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벽면재, 천정재 등 건축용 자재와 기관이나 배관의 보온단열재, 또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성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도 1997년 석면 중 독성이 더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의 제조를 금지하기 전까지는 광범위하게 사용했었다. 한때 서울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유아가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나 화장품의 원료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도로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그동안 직업적으로 석면을 취급하다 발생한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환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석면광산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된 지역 등에서 직업과 무관하게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급여는 악성중피종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중에서 연간 약400만원 한도의 요양급여와 2년간 월 90만원 가량의 생활수당이 지급된다. 사망한 경우는 장의비로 200만원, 유족조위금으로 300만원 가량 지원된다.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조선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062-220-3615·3632)로 하면 된다. 석면으로 인한 대표 질환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이 있다. ◇악성중피종=폐를 싸는 늑막(87%)이나 복부의 복강막(5%),

심(장)막(0.4%) 등에서 발생한다. 바이러스나 방사선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석면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원인없이 옆구리의 통증이나 늑막에 흉수가 차서 숨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1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관련) 원발성 폐암=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배이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아진다. 석면폐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폐암 조직의 검사에서 석면 소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때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석면폐=석면에 노출된 경우, 석면이 폐안에 들어가 면역반응을 유발해 고유한 형태의 폐섬유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폐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석면폐의 중증도를 판독하게 된다. <도움말=이철광 조선대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라식, 검사서 수술까지 하루만에

밝은광주안과 ‘1-Day 라식’시스템 도입

밝은광주안과가 단 하루 만에 검사에서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끝마치는 ‘1-Day 라식/라섹’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환자가 오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되는 장점 탓에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와 수술까지 3~4일 가량 걸리는 라식수술을 하루 만에 한다고 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밝은광주안과는 호남지역 최초 ‘IFS All 레저 라식’을 도입, 안전성과 시술 결과가 만족한 수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Day 라식/라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일 시행한 정밀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의 당일수술 시스템은 오전 일찍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서야 했지만 ‘1-Day 라식/라섹’ 시스템은 당일 오전 예약을 하더라도 당일수술이 가능하다. 평소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대학생들도 앞으로는 연휴나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손쉽게 시력교정술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50일간 회비 집중 모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간을 2011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가한 광주 9억 4000만원, 전남 18억7000만원으로 총 28억1000만원이다. 지난 해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의 107%인 28억4900여만원(광주103%, 전남 109.5%)을 달성했다. 납부방법은 희망 지로의뢰서에 명시된 입금전용지정계좌(1인1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땀샘과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내에서 안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층에다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 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반에 걸쳐 주름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나이가 들면서 히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